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가복음 19장 1-6절

1.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동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 수 없어!

한 청년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청년은 손전등을 들고 마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번개 다음에 찾아오는 천둥소리는 더욱 상황을 두렵게 했고, 번개에 놀란 청년은 그만 손전등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폭우와 강풍 번개와 천둥 최악의 상황에서 손전등이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서운 번개가 칠 때마다 칠혹 같은 어둠을 비춰주고 길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번개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청년으로 하여금 길을 찾도록 만들어 준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 내 삶의 장애, 잘 나가던 나의 인생이 문제가 생겨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꼭 그것이 인생의 장애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장애로 생각되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길을 찾게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도나휴는 그의 책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상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일입니다. 타이어의 공기 압력을 적당히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입니다.

만일 최고의 스피드만을 생각한다면 타이어의 바람을 탱탱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탱탱함이 고속도로에서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사막에서는 반대입니다.

그 탱탱함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물질을 만날 때 펑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우리의 인생에서 탄탄한 길을 갈 때보다는 쑥쑥 빠지는 모래 위를 건너야 할 때 자동차가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사막에서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경험하는 일이지요.

믿음의 나침반을 바라보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만나는 이런 난감함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결은 무엇일까요?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로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나는 어려움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 이런 느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현듯 찾아오지는 않으셨나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찾아오는 무능력,

부모로서 우리의 자격이 미달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

사업의 부진함과 직장에서의 무능력으로 내가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자괴감이 훨씬 크지 않은 신가요?

유명한 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 [인간의 길(The way of Man)]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으나 사람마다 방법이 다르다.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길을 통해 우리를 그 분께로 이끄신다. 각자에게 정해진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선 나의 길을 보기 보다는 누군가와 비교된 나의 길을 보기 때문일 때가 많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그의 책에서 수사라는 랍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수사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느냐”라고 질문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너는 왜 좀 더 너답게 살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나침반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도록,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절 마지막 “**할 수 없어**”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면, 그가 목표했던 산에 올랐으나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이야기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산 정상을 향하는 것이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그 곳에 머물러 누려야할 즐거움이 그리 길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그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그가 목표로 삼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단점을 감추기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가 이루어 놓은 ‘부’는 결국 올바른 목표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자기 삶의 콤플렉스를 안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으로 "물질의 성공"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의 "세리장"이라는 의미가 그렇듯,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민족의 등을 치며 돈을 모았던 사람, 그러기에 누구도 그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위치.

그런데 그가 꿈꾸던 자리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허전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위는 얻었지만 사람은 얻지 못하고, 돈은 얻었지만 친구를 잃어버린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얻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지만 허무함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목적을 이루었지만 무언가 방향이 잘못된 것이지요. 나침반의 방향이 잘못된 인생은 후회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에게, 인생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에게 더 이상 그 탄탄대로를 달릴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달리던 그 길이 아니라는 생각에 도로를 벗어나 모래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의 인생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순간,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가 있기는 했지만 그 시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인생을 달려온 그 탄탄대로에서의 운전 기술이 더 이상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점검 포인트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것입니다. 그 분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라면 자신의 인생에서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을 키가 작은 삭개오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전하는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 닿는 것은,

"사막을 건너려면 사막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깊숙한 사막을 거치지 않고 결코 사막을 건널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인생의 여정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건너야 하는 사막 깊숙이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삭개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 일" 그것이 무엇일까요?

타이어의 바람을 뺏다는 것

도나휴는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달리던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모래에 갇히게 되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고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모래에 빠진 사건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날 갇혀버린 모래더미는 무엇인가요?

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먹히지 않고 함정에 빠진 것과 같은 그 느낌과 상황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아이들도 말을 듣지 않고, 아니 우리의 품을 떠나 버렸습니까?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던 직장에서도 불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왔던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셨습니까? 삭개오는 그 인생의 해답을 얻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상태 그대로, 탕탕하게 바람을 넣고 달리던 그의 타이어를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에 처박힌 자동차가 벗어나려고 액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욱 깊이 수렁으로 빠진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곳을 벗어나는 방법은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바람을 빼고 차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면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바람을 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 돌무화과나무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적 지위와 자신이 쌓아왔던 명성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의 삶에서 바람을 빼는 순간, 그래서 올라간 무화과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빼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본문 말씀 5절을 보세요.

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찾으면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실천한다면 올바른 길을 가게 되겠지요.

그의 삶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던 '돈'의 문제.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지켜줄 줄 알았고, 자신의 가치를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그 돈이 허상이었던 것을 아는 순간.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일단 제가 모은 돈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을 다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자유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가야할 방향을 보게 된 것. 그것이 삭개오에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모래에 빠졌을 때 믿음을 보여야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일까요?

이 순간 계속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 계속해서 액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지켜줬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음성을 들어도 자존심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하든지 말입니다.

인생의 사막에서 모래에 빠졌을 때, 타이어의 바람을 빼면 이제 서서히 차가 모래 위로 올라 오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사막을 다시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바뀌어 진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래에 빠지는 경험들은 여러분들을 겸허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점검하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삶을 밀어붙이지 않고,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순간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래에 빠진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바람을 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대로 인생을 달려왔다면 도저히 진지하게 방향을 점검해 보지 못했을 삶을 분명하게 점검하게 될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는 것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꼭 만나야 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바람을 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천사항

1. 당신의 삶의 발목을 잡는 모래사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당신의 삶에서 바람을 뺀다는 것, 자존심을 낮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3. 바람을 빼고 여러분의 인생을 본다면 어떤 관점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